

News

'경기침체 터널' 출구가 안 보인다...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머니S

16일 기준 오전 11시반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채 금리는 전장보다 0.014%p 오른 연 3.784% 기록... 10년 만기는 0.017%p 내린 3.774% 기록
연고점 다시 갱신... 장단기 금리 역전... 경기 경착륙과 미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동시에 높아지며 나타난 것으로 풀이 중

안심전환·금리상한 대출상품, 예상 깨고 갈아타기 신청 저조

국제신문

15일 기준 출시된 금리상한형 주담대 첫날 신청 건수는 2,406건으로, 은행권이 관련 대비책 마련한 것에 비하면 신청이 저조하다는 평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 4억원 이하 등 조건이 까다로워 자격 충족하는 사람 많지 않아... 소비자들의 금리상승 둔감, 상품 금리가 파격적으로 낮지 않기 때문

토스뱅크 '파격'은 3개월용? ...체크카드 이어 적금 혜택도 축소

서울경제

토스뱅크, '키워봐요 적금' 특약 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적금 간금 출금 기능인 '미리 빼기' 횟수를 기존 최대 6회에서 2회로 줄이기로 결정
한국은행, 토스뱅크의 상품 출시 후 일주일 뒤 6월 20일 전 은행권에 정기적금 만기 분할 해지 횟수를 최대 3회로 제한하는 내용 가이드라인 만들어 보낸 것으로 파악

택배·배달·건강까지... 은행 vs 핀테크 '무한경쟁'

디지털타임스

최근 핀테크와 은행이 제공하는 비금융 서비스를 비교해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 급증... 토스 앱의 주민센터 탭에서 '증명서 떼기' 서비스 제공 중
디지털금융 전환에 대응해 모바일 앱 사용자 늘리기 위한 비금융 서비스 경쟁 중... 비금융 서비스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는 신용평가모델 고도화에 활용할 계획

"집중호우 때문에..." 8월 자동차보험 손해율 '쑥'

이데일리

삼성화재·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8월 자동차보험 손해율(가마감) 80% 초과... 8월 손해율 급증한 것은 수도권 강타한 집중호우 영향
업계는 향후 자동차보험 손해율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 중... 이미 9월에 한남노로 추정손해 총 336억 4,200만원 기록... 추석 명절과 겨울철 빙판길 사고 등 요인 내재

보험사 '위기 방파제' 자본 70조 급증...금리 인상 '단비'

데일리안

국내 39개 생명 및 손해보험사의 LAT 잉여액 총 245조 8,14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2.8% 증가... 액수로 73조 7,204억원 증가
생보업계, LAT잉여액 149조 877억원으로 동기간대비 85.9% 증가... 손보업계, LAT잉여액 96조 7,269억원으로 5.3% 급증

증권사 우발부채 48조원 돌파... 한국투자증권, 1년새 2조 '급증'

머니S

27개 증권사의 채무보증 규모 올해 2분기 기준 총 48조 3,41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5.32% 증가... 가장 많은 곳은 한국투자증권(5조 8,484억원)
다음으로 KB증권(5조 1,337억원), 하나증권(4조 545억원) 순위... 반면 키움, 이베스트, 신영, 한양증권 등은 우발부채 규모 감소... 유동성 리스크로 인한 부동산금융 부실화 촉각

하나증권, 프랑스 생투앙 신축 오피스 인수

더구루

하나증권, 프랑스 파리 북부 생투앙 지역에 위치한 오피스 빌딩 투자... 코로나 19 이후 숨고르기에 들어간 해외 부동산 투자를 다시 적극적으로 확대 중
라 디스틸리리를 인수액 약 1,680억원으로 인수... 올해 첫 한국 금융사의 프랑스 부동산 투자로 현지 업계 주목 받아... 동사는 해외 부동산 투자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증권사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